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의 문제와 개입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김 재 엽

(연세대학교)

조 학 래

(침례신학대학교)

양 혜 원

(한국디지털대학교)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서울과 대전지역의 초등학교, 사회복지관, 그리고 쉼터를 통하여 가정폭력 노출아동 문제의 실태를 조사하고 일반 아동과의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가정폭력 노출아동은 일반 아동에 비해 정서문제와 공격성이 심하고, 사회성이 떨어지며,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및 대처가 부적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와 기존 가정폭력 노출아동을 위한 개입프로그램에 기초하여 쉼터와 일반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통합적 집단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실시하고 그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 검증은 참여 아동에 대한 개별사례분석과 솔로몬4집단설계(Solomon four group design)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사례분석 결과, 대다수의 사례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되어감에 따라 초기의 위축되고 소극적인 행동에서 변화하여 점차 자기표현이 증가하고 다른 구성원들을 적극적으로 지지, 격려하는 등의 긍정적인 행동이 나타났다. 솔로몬4집단설계의 공식에 따라 본 프로그램의 순수실험효과를 산정한 결과, 정서문제, 공격성, 사회기술,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및 대처에 상당한 정도의 순수실험효과를 갖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주제어: 가정폭력 노출아동, 집단프로그램, 정서적 문제, 공격성, 사회기술

* 본 연구는 한국학술진흥재단 2001년 협동연구과제(KRF-2001-042-C00148)의 지원을 받아서 수행되었음.

1. 서론

우리 사회의 가정폭력 발생률은 세계적으로 대단히 높은 수준으로 최근에 발표된 주요 연구결과들에서 일관되게 30% 내외의 가정폭력 발생률이 보고되고 있다(김재엽, 1998; 한국여성개발원, 1999). 가정폭력의 여러 유형 중 특히 남편의 아내에 대한 신체적 폭력은 신체적, 사회적으로 우위에 있는 남성이 여성에게 가하는 폭력으로 그 피해가 매우 크다.

가정폭력은 폭력의 당사자인 남편과 아내는 물론 가정폭력에 노출된 채 성장하는 자녀들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준다. 외국의 경우에는 최근 20여년간 이러한 가정폭력 노출아동에 대해 다양한 연구들을 수행해 오고 있으며, 그 결과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가정에서 성장하는 아동들이 일반 가정의 아동들에 비해 여러 가지 심리적, 사회적 문제를 보이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즉 이들 가정폭력 노출아동은 일반 아동에 비해 높은 수준의 우울, 불안 등을 나타내며 공격성의 증가 등 심각한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나타낸다는 것이다(Hughes, 1988; Jaffe, Wolfe and Wilson, 1990; Carlson, 1990; Peled and Edleson, 1995). 또한 교우관계가 원만치 못하거나 학업성적이 떨어지는 등 학교생활에서의 부적응이 심각하고(Carlson, 1984), 사회문제해결기술의 빈약(Rosenberg, 1987)으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도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가정폭력 노출아동에 대한 연구는 지극히 빈약한 실정으로, 최근에서야 연구가 시작되어 아직은 그 수가 매우 적다(노치영·박성연, 1992; 김경희, 1995; 민병근·김현수, 1997; 조미숙, 1999; 양혜원, 2002). 또한 대부분의 기존연구들은 가정폭력 노출아동이 경험하는 문제를 다각적으로 이해하거나 그 실태에 대한 통합적 분석 노력이 부족한 경향이 있다. 특정한 환경에 처한 적은 수의 아동들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혹은 특정 연령의 아동들만을 대상에 포함하는 등 연구대상이 제한적인 것도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될 수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 노출아동의 문제를 다각적으로 이해하고, 다양한 아동들을 연구대상에 포함시켜서 이들 가정폭력 노출아동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외국에서는 이들 가정폭력 노출아동들에 대한 개입 역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미 다양한 개입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그 효과성에 대한 연구결과들도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Jaffe, Wilson, and Wolfe, 1986; Jaffe, Wolfe, and Wilson, 1990; Wagar and Rodway, 1995;).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소수의 가정폭력 노출아동에 대한 개입프로그램만이 보고되었으며, 효과성에 대한 검증 역시 시작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양혜원, 2002). 특히 일반 지역사회 기관은 물론 가정폭력 노출아동에 대해 최우선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는 가정폭력 피해여성 쉼터에서조차도 전문적 프로그램이 수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사회에서도 가정폭력 노출아동들을 위한 전문적인 개입프로그램의 활발한 수행 및 효과성 검증 노력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 아동과 가정폭력 관련기관을 이용하는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가정폭력 노출이 아동에게 미치는 피해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이들 노출아동의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전문적 개입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수행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개별 아동에 대한 사례분석과 솔로몬4집단 실험설계(Solomon four-group design)를 활용한 양적분석을 병행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다양한 환경에 처한 가정폭력 노출아동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문제에 다각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실태조사는 우리나라 가정폭력 노출아동이 겪고 있는 문제의 유형과 정도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가정폭력 노출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실시 및 효과성 평가는 많은 가정폭력 노출아동들의 문제를 완화시키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개입프로그램에 대한 체계적인 효과성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사회복지 임상실천의 전문성을 고취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이론적 배경

1) 가정폭력 노출아동의 개념

남편이 아내에게 행사하는 가정폭력이 발생할 때 아동이 이를 경험하는 내용과 정도는 광범위하다(Wyndham, 1998). 아동은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자리에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를 만류하는 등 폭력에 직접 관련되거나 폭력을 직접 목격할 수 있다. 아동이 자신의 방 등 가정 내의 다른 장소에 있으면서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 혹은 아동이 어머니가 입을 상처나 깨어진 물건 등을 보으로써 폭력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도 있다.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가정에서 생활하는 아동을 표현하는 용어도 다양한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은 목격자(witnesses), 관찰자(observers), 그리고 가정폭력에 노출된(exposed) 아동 등이다. 이 중 ‘가정폭력 노출아동’이라는 용어가 가장 광범위한데, 이는 아동이 가정폭력 장면을 직접 목격하거나 관찰하지는 않았으나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경우도 포함하기 때문이다. 또한, ‘노출된’이라는 용어는 ‘목격자’라는 용어가 초래할 수 있는 ‘법정에서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증언을 한 아동’이라는 혼동에 대해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본 연구에서 가정폭력 노출아동과 같은 포괄적인 용어가 적절한 것은 가정폭력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이 직·간접적인 것으로서, 반드시 아동이 가정폭력 장면을 직접 관찰하거나 목격하는 경우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Sudermann and Jaffe, 199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가정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을 ‘가정폭력 노출아동’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이렇게 가정폭력 노출아동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자 하는 것은 아동이 폭력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정폭력은 불안한 가정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어머니의 양육능력 저하 등을 초래하여 아동문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2) 가정폭력 노출아동의 문제

외국의 선행연구에서 가정폭력 노출아동은 다양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CBCL (Child Behavior Checklist)을 이용한 많은 연구들이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은 일반가정의 아동에 비해 심한 정서적, 행동적, 사회적 문제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Wolfe, Jaffe, Wilson, and Zak, 1985; Hughes, 1988; Hughes, Parkinson, and Vargo, 1989; Fantuzzo 외, 1991; O'Keefe, 1994).

정서적 문제의 대표적 증상으로는 우울·불안, 위축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쉽터에 거주하는 아동의 경우 더욱 심각하여 휴이(Hughes, 1988)의 연구결과 쉽터에 거주하는 조사대상 아동의 55%가 심하게 위축된 상태였으며, 약 10%는 자살의 위험이 있었다. 알레시와 헨(Alessi and Hearn, 1984) 역시 쉽터에 거주하는 아동들이 손톱을 물어뜯거나 머리카락을 뽑는 등의 불안한 행동과 복통 등의 신체화 증상을 호소하는 빈도가 매우 높다고 하였다.

행동적 문제로는 공격성이나 비행 등이 빈번한데 일례로 오키훤(O'Keefe, 1994)의 연구에서 조사 대상 아동의 21%가 CBCL의 외재화 척도에서 98 percentile에 달하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 쉽터와 일반 가정에 거주하는 가정폭력 노출아동과 일반 아동을 비교 연구한 환투조와 동료들(Fantuzzo 외, 1991)의 연구에서도 가정폭력 노출아동은 일반 아동에 비해 보다 심한 행동문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쉽터 거주 아동은 일반 가정에 거주하는 아동보다도 더 심각한 수준의 문제를 보였다.

사회성 영역에 있어서도 가정폭력 노출아동들은 또래나 가족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거나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논문 23편에 대한 체계적 고찰을 실시한 환투조와 린드퀴스트(Fantuzzo and Lindquist, 1989)의 연구에서 조사 대상 논문들은 일관되게 가정폭력 노출아동은 일반아동에 비해 문제해결능력이나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로젠버그(Rosenberg, 1987)의 연구에서도 아내구타를 목격했거나 목격한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자기 주장적이지 못하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은 가정폭력에 대해 왜곡된 인식이나 부적절한 대처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일례로 제휘와 동료들(Jaffe, Wolfe, and Wilson, 1990)은 가정폭력 노출아동이 가정폭력과 관련된 인식 및 대처행동에 있어 특유의 문제들('subtle symptoms')을 보이는데 이는 폭력에 대한 허용적 태도, 가정폭력의 원인이나 책임소재에 대한 왜곡된 인식 및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부적절한 대처행동 등이라고 하였다.

반면에 국내의 가정폭력 노출아동에 대한 연구는 양적으로 빈약하고 내용도 제한적이다. 사회학습 이론을 근거로 하여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은 공격성이 높고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많음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대다수이다(노치영·박성연, 1992; 김경희, 1995; 민병근·김현수, 1997). 그러나 국내에서도 최근의 몇몇 연구들은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K-CBCL)를 활용하여 가정폭력 노출아동의 문제를 보다 다각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는데, 그 결과 가정폭력 노출아동은 일반아동에 비해 심각한 수준의 정서적, 행동적, 사회적 문제를 보였다(조미숙, 1999; 양혜원·전명희, 2001).

3) 가정폭력 노출아동을 위한 개입프로그램

국내에서는 가정폭력 노출아동을 위한 개입프로그램의 개발 및 활용이 지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그러나 미국과 캐나다 등 서구에서는 20여 년 전부터 쉼터 및 지역사회 기관에서 다양한 가정폭력 노출아동을 위한 집단프로그램들을 실시하고 있다(Gentry and Eaddy, 1980; Hughes, 1982; Gibson and Gutierrez, 1991; Peled and Davis, 1995; Loosely 외, 1997; Alessi and Hearn, 1998). 서구에서 선행된 주요 프로그램들의 구조 및 주요 내용 등을 간략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프로그램의 기본구조를 살펴보면, 대개 6-10주의 단기 프로그램으로서, 주로 3-14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적절한 집단의 규모는 6-9명 정도로 제시되었으나 실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대개 3-6명 가량으로 소규모이다(Peled and Davis, 1995). 둘째, 프로그램의 주요목표에는 ① 폭력에 대한 이해, ② 분노를 비롯한 여러 가지 감정 다루기, ③ 문제해결기술 습득, ④ 의사소통 증진, ⑤ 자존감 향상, ⑥ 사회적 지지망 개발, ⑦ 자기보호계획 수립 등이 포함된다. 셋째,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구조화되고, 시간 제한적이며, 집중적인 내용으로 구성되며, 특정이론에 근거하기보다는 다양한 치료모델들이 통합적으로 활용된다(Alessi and Hearn, 1998). 넷째, 프로그램이 아동의 발달단계와 문제 정도에 따라 특화되므로 발달단계 및 피해정도에 따라 가급적 동질적인 아동들을 대상으로 집단이 구성된다(Hughes and Luke, 1998; Lehmann and Carlson, 1998).

3. 실태조사

본 연구에서는 국내 가정폭력 노출아동들이 경험하는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초등학교, 사회복지관, 쉼터를 통하여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여 스스로 보고하는 양식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더불어 쉼터에 거주하는 어머니와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일대일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의 문제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정보를 얻고자 하였다.

1) 조사과정

설문조사는 서울을 4대 권역으로 구분하여 각 권역 당 1개교, 그리고 대전에서 1개교 등 총 5개의 초등학교와 서울의 사회복지관 3개소를 통하여 총 400명의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 중 내용이 부실한 10명을 제외한 390명의 응답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면접조사는 서울 및 수도권과 대전 지역의 쉼터 5개소를 통하여 38명의 어머니와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중 응답 내용이 불성실한 1명을 제외한 37명의 응답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설문조사는 2002년 3월에서 4월에, 면접조사는 2002년 2월에서 4월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면접은 가정폭력을 연구하는 사회복지학 석·박사과정 대학원생들이 면접을 위한 훈련을 받은 후, 컴퓨터로 조사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였다.

2) 측정도구

설문조사에서는 문제행동을 평가하기 위하여 한국판 아동행동평가척도(K-CBCL:Child Behavior Checklist)를 사용하였다. 이 측정도구는 아첸바크(Achenbach, 1991)가 제작한 것으로, 부모 또는 아동과 함께 생활하는 성인이 아동 혹은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사회적 능력을 표준화된 형태로 기록하는 행동평가 도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K-CBCL 중 우울·불안, 위축, 공격성, 사회성 하위척도의 내용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가정폭력의 발생에 대한 측정은 스트라우스(Straus, 1971)의 CTS(Conflict Tactics Scale)를 한국적 상황에 맞추어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스트라우스(Straus, 1971)는 부부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갈등 해결방법으로 사용하는 행동양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CTS를 개발하였으며, 이는 갈등관리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표준화된 척도로는 유일한 것이다.

면접조사에서는 설문조사에서 사용한 구조화된 측정도구에 더하여 아동의 문제를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개방형 질문을 활용했으며 아동의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과 대처를 살펴보기 위하여 마샬 외(Marshall 외, 1995)가 개발한 아동 사전-사후 면접질문지(Pre-Post Child Questionnaire/Interview)를 기초로 하여 새롭게 구성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조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를 조사대상자별로 제시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실태조사의 측정도구

조사영역	조사대상	조사내용	측정도구
사회인구학적 특성	부모	학력, 직업, 수입, 종교	
아동의 문제	부모	정서적 문제: 우울·불안, 위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K-Child Behavior Check List (K-CBCL), (Achenbach) •개방형 질문 (면접조사에 한함)
		행동적 문제: 공격성, 비행	
		사회적 문제: 교우관계	
	아동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및 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Pre-Post Child Questionnaire/Interview (Marshall 등) (면접조사에 한함)
가정폭력 실태	부모	언어적 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Conflict Tactics Scale(CTS) (Straus & Gelles)
		신체적 폭력	

3) 조사결과

이상과 같은 실태조사와 면접조사의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가정폭력 발생률은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기관인 쉼터를 제외하고 학교와 복지관을 통하여 얻어진 조사결과에서, 아내에 대한 남편의 신체적 폭력 발생률은 경미한 폭력과 심한 폭력을 모두 합한 전체 폭력의 경우 25.1%, 경미한 폭력의 경우 24.2%, 심한 폭력의 경우 5.5%로 나타나서 우리 사회의 높은 아내폭력 발생률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¹⁾ 특히 아동이 부부간에 발생한 신체적 폭력을 목격한 경우가 전체의 11.8%로 나타나 일반 가정에서도 자녀 9명중 1명이 부부폭력을 직접적으로 목격하고 있었다.

정서문제에 있어서 일반 아동의 정서문제 평균점수는 0.6894인데 비해 가정폭력 노출아동은 0.9867의 높은 점수를 보여서 이들의 정서문제가 보다 심각함을 알 수 있었다($t=-5.809$, $sig=0.000$). 가정폭력 노출 정도가 심하고 거주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문제가 보다 심각할 것으로 예측되는 쉼터 아동을 제외한 학교·복지관의 가정폭력 노출아동의 정서문제 점수 역시 0.8507로 일반아동에 비해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쉼터 아동만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의 결과, 조사 대상 아동의 2/3가 몹시 불안해하거나 의기소침한 상태에 빠지는 등 심각한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동문제에 있어서 가정폭력 노출아동의 공격성 점수는 1.0458로서 일반 아동의 공격성 점수인 0.8279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이었다($t=-4.090$, $sig=0.000$). 정서문제와 마찬가지로 쉼터 아동을 제외한 학교·복지관의 가정폭력 노출아동의 공격성 점수 역시 0.9844로 일반 아동의 공격성 점수에 비해 훨씬 높았다. 면접조사에서 쉼터 거주 아동 중 약 50% 가량이 폭력행동이나 심한 짜증 등의 행동문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성 측면에 있어서도 가정폭력 노출아동의 사회성 점수는 3.5472로서 일반 아동의 사회성 점수인 3.7898에 비해 낮았다($t=-4.929$, $sig=0.000$). 쉼터 아동을 제외한 학교·복지관의 가정폭력 노출아동의 사회성 점수 또한 3.5932로 일반 아동의 사회성 수준에 비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면접조사의 결과에서도 조사 대상 쉼터 아동의 2/3가 따돌림 등의 또래관계문제나 학교생활 부적응 등 여러 가지 사회성 문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쉼터에 거주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를 통해서 가정폭력에 대한 아동의 인식과 대처에 관하여 살펴본 결과,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32.4%의 아동이 ‘아빠가 술에 취했기 때문에 엄마를 때리는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모르겠다’도 11.8%로 아내구타 원인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부적절하게 인식하는 경우가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싸

1) 가정폭력 발생률에 대한 분석에서 쉼터를 제외하고 초등학교 및 복지관의 아동만을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쉼터 거주 아동들은 모두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가정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이므로 이들을 포함하여 결과를 분석할 경우, 가정폭력 발생률이 왜곡되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가정폭력발생률을 제외한 나머지 결과들, 즉 가정폭력 노출아동과 일반아동의 정서문제, 공격성, 사회성에 대한 비교는 쉼터 아동들을 포함한 것임에 유의하기 바란다.

움을 말려야 한다고 응답한 아동은 전체의 67.6%인 반면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한다고 응답한 아동은 26.5%에 불과하여 이들이 가정폭력에 대한 올바른 대처방안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조사결과, 가정에서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조사대상자의 1/4에 달하고, 아동이 부부간의 신체적 폭력을 직접 목격한 경우도 11.8%나 되어 우리 사회의 가정폭력 문제, 특히 아동의 가정폭력에 대한 노출 문제가 매우 심각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가정폭력 노출 아동은 일반 아동에 비해 정서문제와 공격성이 심하고, 사회성이 떨어지며,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과 대처가 부적절하였다. 즉 가정폭력 노출아동의 행동문제를 강조했던 기존의 연구결과와는 달리 이들 가정폭력 노출아동들은 특정 영역에 국한된 문제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적응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어려움은 쉼터에 거주하는 아동들 뿐 아니라 일반 가정에 거주하는 아동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따라서 쉼터와 같이 가정폭력 문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기관은 물론이거니와 나아가 학교, 사회복지관, 상담소 등과 같은 일반 기관에서도 가정폭력 노출 아동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4. 프로그램 구성

상기한 실태조사의 결과 우리나라의 가정폭력 노출아동들에게 개입하는 프로그램은 특정 영역에 대한 접근을 강조하기보다는 통합적 접근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통합적 접근을 시도하는 외국의 대표적 프로그램들인 DAP프로그램, CAS프로그램, 알레시와 헨(Allessi and Hearn)의 프로그램, 그리고 이들 프로그램을 근거로 국내에서 양혜원(2002)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토대로 하여 본 연구의 가정폭력 노출아동을 위한 집단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1) 프로그램의 특징

DAP와 CAS프로그램은 통합적 접근에 기반해서 가정폭력 노출아동의 광범위한 문제에 개입하며, 특히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 및 대처를 돕기 위한 실질적 교육을 포함하고 있다. 알레시와 헨(Allessi and Hearn)의 프로그램은 대표적인 쉼터 중심 프로그램으로서 위기모델, 가속화모델(Accelerated Model), 그리고 교육적 요소를 포함하는 통합적 접근을 시도한다. DAP와 CAS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효과성 평가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DAP 프로그램의 경우, 자연주의적 연구모형(naturalistic research paradigm)에 근거하여 질적 평가가 실시되었는데, 그 결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들은 폭력에 대한 이해 증진, 정서적 노출, 다른 아동들과 경험 나누기 등 프로그램의 목적을 적절히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Peled and Davis, 1995; Peled and Edleson, 1995). CAS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수차례의 양적 평가가 시도되었고, 그 결과 아동의 자존감 증진, 폭력에 대한 태도 변화, 위기상황에서의

실질적 기술 증진 등에 전반적으로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Jaffe, Wilson and Wolfe, 1986; Wagar and Rodway, 1995). 특히 구조화된 면접과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PPI(Parent Perception Inventory)를 병행하여 실시하여 88%의 어머니가 아동의 행동변화를 인식하였다고 보고하였다(Jaffe, Wolfe and Wilson, 1990).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기초로 양혜원(2002)은 지지적·교육적 접근을 중심으로 하고 다양한 인지, 정서, 행동적 기법이 활용되는 통합적 집단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 문화의 가족주의적 특성을 반영하고 감정표출이나 자존감 향상 등 정서적 영역에 비중을 두었다. 또한 프로그램을 섭터 아동들과 일반 가정에 거주하는 가정폭력 노출아동들에게 적용한 결과, 참여 아동들의 정서문제, 공격성, 사회기술, 그리고 가정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 및 대처에 있어서 뚜렷한 향상이 나타났다(양혜원, 2002).

본 연구에서는 상기한 기존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하여 활용하였는데 수정되거나 보완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치료적 접근 방식에 있어서 교육적 접근의 비중을 크게 줄이고, 대신 정서적·지지적 접근을 강화하였다. 기존 프로그램에서는 지지적 접근과 교육적 접근이 동일한 비중을 차지하여 아동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한 정서적 지지가 제공됨과 더불어 '미니강의'와 같은 교육적 접근이 매 회기마다 실시되었다. 그러나 기존 연구의 결과, 참여 아동들의 정서적 표출이나 가정폭력과 관련된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기회의 제공, 아동-진행자간의 친밀한 관계형성 등 정서적 요인이 중요한 치료적 요인으로 나타났다(양혜원, 2002). 반면 교육적 접근은 가정폭력의 원인이나 책임에 대한 적절한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나 매 회기마다 지속적으로 실시되어 어린 아동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집중력이 저하되는 문제가 나타났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에서는 기존 프로그램에서는 2회기에서 7회기에 걸쳐 매 회기마다 반복되던 '미니강의'를 없애고 대신 3-4회기에서 가정폭력 이해 및 대처에 대한 핵심 내용을 다루는 것으로 축소하였다.

둘째, 프로그램의 활동 구성에 있어서 인지적 요소를 크게 감소시켰다. 기존 연구의 진행과정에서 참여아동들 중 일부가 인지적 활동을 수행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몇몇 저학년 아동들은 기본적인 읽기·쓰기 능력이 결핍되어 그러한 능력을 요구하는 활동에서 매우 위축되는 경향이 있었다. 일부 아동들은 프로그램에서 활용한 비디오²⁾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체적 활동이나 찰흙 등을 이용한 만들기, 그림 그리기 등으로 활동을 구성하고 편지쓰기나 퀴즈 등 인지적 능력을 요구하는 활동은 최소한으로 하였다.

셋째,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과 대처의 영역에서 우리 문화의 가족주의적 특성에 대한 반영을 보다 강화하였다. 기존 프로그램에서는 가정폭력 가해자로서의 아버지에 대한 양가감정이나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신고 등과 관련하여 우리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이외에도 가족 중심의 우리 문화에서는 개인주의적 서구의 가족에 비해 부모-자녀간 경계가 상대적으로 불분명한 경향이 있으며, 부부간에 폭력이 발생할 때 아동이 부부문제에 더욱 깊이 관련되므로 이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이 가중됨을 인식하고 참여아동들이 이와 같은 어려움을 충분히 표출할 수 있도록 격

2) 기존 프로그램에서는 캐나다의 가정폭력 노출아동을 위한 비디오("Kid's Stuff")를 활용했으나 본 프로그램에서는 국내에서 제작된 비디오("도하의 꿈")로 바꾸어 아동의 이해와 공감을 도모하였다.

려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가정폭력 노출아동들에게 부모 문제에 부적절하게 개입하지 말 것을 당부하자 아동들이 심한 혼란을 경험하고 죄책감을 느낌을 발견하였으므로 본 프로그램에서는 부모 문제에 개입하기보다는 자신의 안전과 건전한 생활을 위해 노력하도록 지도하되 그로 인하여 아동들이 가질 수 있는 양가감정이나 죄책감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2) 프로그램의 내용

본 프로그램은 총 8회기로 구성되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2회기는 도입기로서 1회기에는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프로그램의 규칙을 정하여 안전한 집단 분위기와 효과적인 진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2회기에서는 감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감정표출을 격려하여 집단을 통하여 충분한 정서적 정화와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3-4회기는 본격적으로 가정폭력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하였는데, 3회기에서는 가정폭력 노출아동에 관한 비디오 시청을 통하여 가정폭력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4회기에서는 가정폭력 상황에서 아동 자신의 안전을 지키고 이웃이나 친척 등에게 필요한 도움을 청하는 바람직한 대처방안을 습득하도록 하였다. 5-6회기에는 가정폭력 노출로 인한 여러 가지 부정적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는데 5회기에서는 분노조절, 6회기에서는 자기주장적 행동에 초점을 맞추었다. 7-8회기는 마무리 단계로서 7회기에서는 협동작업을 통하여 참여 아동들간의 유대감을 극대화하고, 8회기에서는 수료식을 통하여 성취감을 경험하며 집단을 마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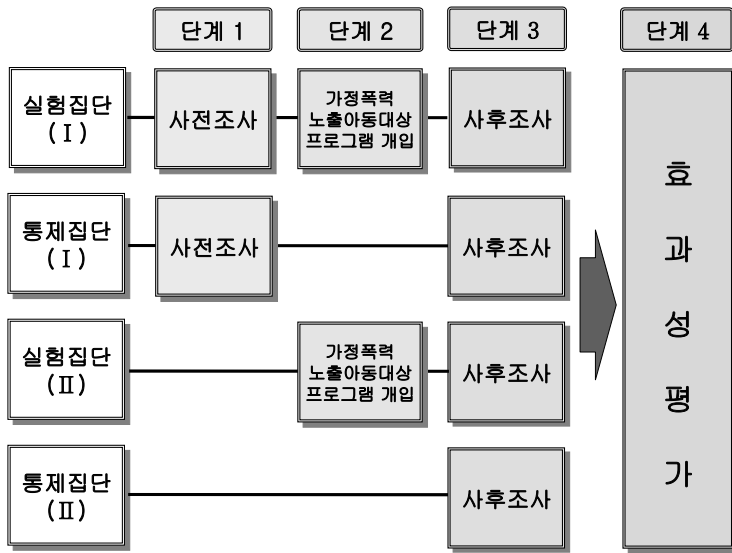
5. 효과성 평가

1)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상기한 집단프로그램을 복지관의 방과후교실을 이용하는 가정폭력 노출아동(실험집단Ⅰ)과 쉼터에 입소한 가정폭력 노출아동(실험집단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그 효과성을 살펴보았다. 본 효과성평가 연구의 설계, 대상, 절차, 도구, 분석방법과 제한점 등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설계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집단에 참여한 아동들에 대한 개별적 사례분석과 솔로몬4집단설계를 활용한 양적 분석을 병행하였다. 솔로몬4집단설계는 프로그램의 효과성 파악을 방해하는 상호작용시험효과나 기타 다른 외생변수의 효과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모형이다. 솔로몬의 4집단 실험설계를 활용한 본 연구의 효과성 평가 설계는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가정폭력 노출아동 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틀

(2) 연구대상

실험집단 I 은 W사회복지관 방과후교실에 소속된 초등학교 1-2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전체 아동 중 가정폭력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된 아동은 모두 9명이었으며 그 중 5명은 실험집단으로, 나머지 4명은 통제집단으로 선정하였다. 실험집단에 속한 5명은 모두 프로그램의 전 과정에 참여하였으며 사전, 사후조사에 응했으므로 실험집단에 대한 분석은 이들 5명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통제집단의 경우에는 4명 중 1명의 아동이 개인사정으로 사후조사에 참여하지 못하였으므로 사전, 사후조사에 참여한 3명만을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

실험집단 II는 T여성쉼터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아동들로서, 프로그램 실시 당시 입소 중인 초등학교 6명 전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이들 중 2명은 프로그램 진행 도중 퇴소하였으므로 실험집단 II에 대한 분석은 나머지 4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통제집단은 인근 S여성쉼터에 입소한 초등학교생 등 총3명의 쉼터 아동으로 구성하였다.

(3) 연구절차

실험집단 I 은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한 W종합사회복지관의 방과후아동교실에서 실시되었다. 먼저 담당사회복지사와의 협의를 거치고 기관 실무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프로그램 실시를 확정하고 참여아동을 선정하였는데 전체 방과후아동교실 이용 아동 24명 중 담당사회복지사와 보육교사에 의해 가정폭력에 노출되었거나 노출되고 있는 아동은 모두 9명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중 5명을 실험집단에 포함시키고, 나머지 4명은 통제집단 I 로 구성하였다.

방과후아동교실 교사를 대상으로 한 접수면접 및 사전평가 그리고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사전평가는 2002년 8월 12일에 대면면접을 통해 이루어졌다. 프로그램은 2002년 8월 14일부터 8월 28일까지 3주간 주2-3씩 총8회기가 실시되었다. 프로그램 실시 후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사후평가는 2002년 8월 28일 프로그램 종결 직후에 이루어졌으며, 방과후아동교실 교사대상의 사후평가는 2002년 8월 29일에 이루어졌다. 통제집단에 대한 사전, 사후평가도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기간에 이루어졌다.

실험집단II는 T여성쉼터에서 실무자와의 협의를 거친 후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프로그램 실시를 확정하였다. 쉼터에 입소 중인 초등학생 6명 전원을 프로그램 실시 대상으로 하여 어머니에게 프로그램의 목적, 내용, 기간 등을 명시한 안내문을 전하고 동의를 얻어 최종 집단구성원을 확정하였다.

실험집단II의 어머니에 대한 접수면접은 2002년 8월 12일에 이루어졌으며 집단프로그램은 2002년 8월 17일부터 8월 30일까지 3주간 주 2-3회씩 총 8회기에 걸쳐 실시되었다. 사후평가는 2002년 8월 30일에 이루어졌다. 통제집단II는 본 프로그램 진행 이후 T여성쉼터에 입소한 초등학생들과 인근 S여성쉼터에서 입소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구성하였으며 이들에 대한 사후평가는 2002년 8월 31일에 어머니와 아동을 대상으로 면접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프로그램의 실시는 실험집단 I의 경우, 임상사회복지 경험이 풍부하고 사회복지학 박사과정을 수료한 사회복지사 1인과 W사회복지관 전문상담센터 소속의 사회복지사 1인이 공동으로 하였으며 사회복지 석사과정 실습생이 관찰자로 참여하였다. 실험집단II의 경우에는 가정폭력 관련 실무에 경험이 있으며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회복지사 1인과 사회복지학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 1인이 공동으로 하였으며 역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 1인이 관찰자로 참여하였다.

(4) 평가도구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평가도구를 사용하였다.

① 정서문제

프로그램 참여 전후에 나타나는 아동의 정서문제 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아동기에 나타나는 대표적 정서적 문제인 우울, 불안, 위축을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판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K-CBCL) 중 우울·불안척도와 위축척도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원래 '자주 있었다' '그런 경향이 있다'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의 3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나 단기간에 나타나는 변화를 파악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5점 척도로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슬퍼하고 우울해한다' 등을 비롯한 우울, '지나치게 겁이 많거나 불안해한다' 등의 불안과 '위축되어 남들과 어울리지 않으려고 한다' 등 위축의 정도를 측정하는 총 13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사전조사의 경우 크론바크(Cronbach) $\alpha = .6503$, 사후조사의 경우 $\alpha = .9103$ 으로 나타났다.

② 공격성

프로그램 참여를 전후한 아동의 공격성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K-CBCL의 공격성 척도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신체적으로 남을 공격한다’, ‘고함을 지른다’를 비롯하여 총 13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공격성 평가 도구 역시 정서문제 평가도구와 같이 5점 척도로 수정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사전조사의 경우 $\alpha = .8531$, 사후조사는 $\alpha = .8277$ 로 나타났다.

③ 사회기술

프로그램 참여를 전후한 아동의 사회기술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맷슨(Matson, 1983)이 개발한 아동 사회기술 평가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아동 사회기술 평가척도는 아동의 사회관계에서의 유능함을 평가하는 척도로서, 총 62문항이고 적절한 사회적 행동과 부적절하고 충동적인 사회적 행동의 두 요인으로 구분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먼저 대화를 시작한다’ ‘놀이의 규칙을 따른다’ 등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10문항을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사전조사는 $\alpha = .7923$, 사후조사의 경우 $\alpha = .6518$ 이었다.

④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및 대처

아동의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과 대처가 프로그램 참여 전후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아동이 상황에 따라 가정폭력을 허용하는 정도, 가정폭력 발생 원인에 대한 인식, 가정폭력 상황에서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측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등 마샬 등(Marshall 외, 1995)이 가정폭력 노출아동을 대상으로 개발한 아동 사전-사후 면접질문지(Pre-Post Child Questionnaire/Interview)의 관련문항을 참고하여 가정폭력 인식에 대한 5개 문항과 대처에 대한 4개 문항으로 제작하여 사용하였으며, ‘예’, ‘아니오’, ‘잘 모르겠음’의 세 가지 응답범주로 구성하였다.

(5) 분석방법

프로그램 효과성에 대한 분석은 개별 아동에 대한 사례분석과 솔로몬4집단설계에 의한 양적 분석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사례분석은 실험집단 I, II에 속한 모든 아동에 대하여 프로그램 진행과정에 대한 관찰평가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난 각 아동의 태도 및 행동변화에 대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프로그램 과정기록(process recording) 및 주진행자, 보조진행자, 관찰자가 개별성원의 회기별 특성에 관하여 작성한 평가기록을 종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실험집단 I에 속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여 프로그램 사전과 사후에 정서문제, 공격성, 사회기술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프로그램 실시 이전과 이후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실험집단 II에 속한 아동들의 경우, 솔로몬4집단설계의 특성상 사전조사가 실시되지 않아 사전, 사후의 비교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를 보완하고자 프로그램 진행과정에 아동들이 적극적으로 참여와 자기표현의 정도를 회기별로 평가하여 제시하였다.

양적분석은 솔로몬4집단설계의 공식에 의거하여 각각의 변인에 대한 본 프로그램의 순수실험효과를 파악하였다.

(6) 연구의 제한점

본 실험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특성으로 인해 무선표집 및 무선할당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시키는 본격적인 실험설계에 비해 타당성이 떨어질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의 실험집단 I, II는 각각 사회복지관 이용 아동과 컴퓨터 거주 아동으로 구분되므로 집단간 동질성 확보가 제한적이다. 본 연구의 실태조사에서 가정폭력에 노출된 복지관아동과 컴퓨터 아동이 보이는 문제 유형에 별다른 차이가 없었으나 솔로몬4집단설계의 원칙에 따라 실험집단 II와 통제집단 II에 대한 사전조사가 실시되지 않았으므로 프로그램 실시 이전의 집단간 동질성은 검증되지 않았다.

2) 연구결과

(1) 개별사례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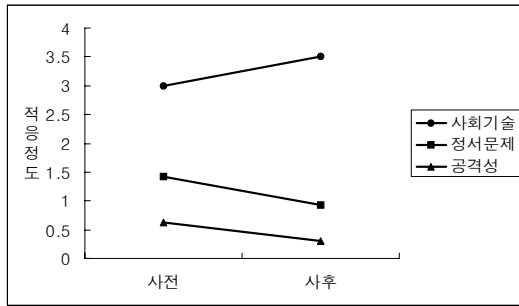
개별사례분석은 실험집단 I, II에 참가한 아동 9명에 대하여 실시되었다. 프로그램 진행과정에 나타난 행동을 중심으로 내용분석을 실시했으며, 실험집단 I에 속한 사회복지관 이용 아동들(사례1~사례5)에 대해서는 정서문제, 공격성, 사회기술에 대한 사전-사후조사가 실시되었으므로 프로그램 실시 전후의 점수를 비교하여 그림으로 제시하였다. 실험집단 II에 속한 컴퓨터 거주 아동들(사례6~사례9)의 경우에는 본 연구에서 활용된 솔로몬4집단설계에서 4개 집단들 중 2개 집단에 대해서는 사전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사전-사후조사 점수에 대한 비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를 보완하고자 본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시한 치료적 요소인 아동의 자기표현과 정서적 표출의 정도에 대한 회기별 관찰평가를 실시하였다. 주진행자, 보조진행자, 관찰자가 개별 아동에 대하여 각각 0점에서 10점 사이의 점수를 매긴 후 그 평균을 구하였으며, 회기별 점수를 그림으로 제시하였다.

① 실험집단 I

㉞ 사례1(여, 2학년, 복지관 이용)

사례1은 평소에 얌전하며 말수가 적고 눈에 뜨이지 않는 아동이었다. 그런데 프로그램 참여를 통하여 정서문제, 공격성, 사회기술 모두에 있어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³⁾ 정서문제의 경우 프로그램 참여 이후 0.5점, 공격성 0.31점 감소하였으며, 사회기술은 0.5점 증가하여 세 평가도구 상에서 모두 변화가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3) 정서문제, 공격성의 경우 점수가 낮아질수록 문제가 완화된 것을 의미하며, 사회기술은 점수가 높아질수록 사회기술이 증진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서문제, 공격성은 그래프가 하향할 때, 사회기술은 그래프가 상승할 때 긍정적 변화를 의미한다.



<그림 2> 사례1의 사전-사후 적응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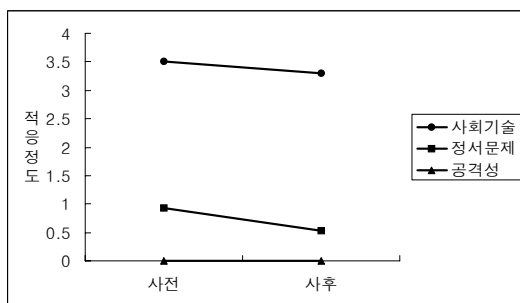
사례1의 경우, 정서문제와 관련하여 프로그램 초기에는 발표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한 모습이였다. 또한 질문을 하면 답변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답변 내용도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보다 주로 “모르겠어요”라고 답변하는 등 소극적이고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4회기 프로그램에서 “상당실에 오는 것이 좋아요”라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였으며, 5회기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을 제안하는 등 적극적이고 활발한 모습으로 변화를 보였다. 이후 자신의 의사나 요구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보이는 등의 긍정적인 모습이 지속되었다.

사회기술의 측면에서는 초기에는 소극적인 참여 태도를 보이면서 다른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도 활발하지 않았으나 5회기 이후 다른 구성원들과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모습이 여러 차례 관찰되었다. 특히 프로그램에서 서로를 칭찬하는 시간에 다른 구성원들에 대한 칭찬에 적극적이었으며, 프로그램 시작할 때나 마칠 때 다른 구성원들과 손을 잡고 오가는 등 친밀감을 표현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사례1은 본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위축되고 소극적인 모습에서 변화하여 점차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참여하였으며 다른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도 발전시켜 나갔다고 하겠다.

㉔ 사례2(여, 1학년, 복지관 이용)

사례2는 집단 내 다른 구성원에 비해 공격성이 가장 낮고, 사회기술은 가장 높았으며, 정서문제 역시 거의 없었다. 즉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적응 정도가 양호한 아동이었다.



<그림 3> 사례2의 사전-사후 적응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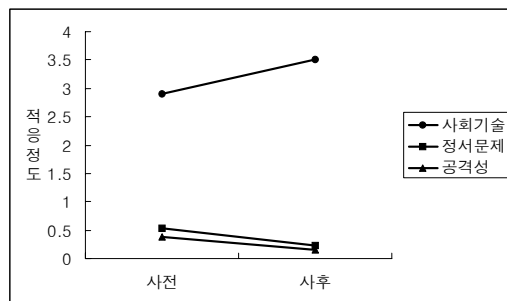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변화를 보면, 정서문제에 있어서 0.38점 감소를 보였으며, 공격성이나 사회기술의 경우는 프로그램 내내 긍정적인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사례2의 적응정도의 변화를 그림으로 보면 <그림 3>과 같다.

사례2는 프로그램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구성원들과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일례로 1회 프로그램부터 자신의 의견을 손을 들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등 적극적이고 활발한 모습을 보였다. 다른 구성원들에게 ‘미안해’, ‘고마워’의 표현을 적절히 잘 사용하였으며, 다른 아이가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자 과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돌봐주고 격려하는 긍정적인 모습도 보여주었다.

사례2의 경우는 프로그램 초기부터 심각한 문제행동 없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으며, 이러한 행동이 다른 구성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가정폭력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는데 있어서는 언니(사례3)의 영향으로 다소 방어적인 모습을 보여, 충분히 공유하는 기회를 가지지 못하였다.

㉔ 사례3(여, 2학년, 복지관 이용)

사례3은 평상시 방과후 프로그램 교사의 말을 잘 따르는 편이었다. 다만, 방과후교실에서 몇 아이들을 따돌리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그러나 본 집단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은 모범적인 행동을 보였으며, 사전-사후조사 결과, 프로그램 참여를 통하여 정서문제는 0.31점, 공격성 0.23점 감소하였으며, 사회기술은 0.6점 증가하여 세 평가도구 상에서 모두 긍정적 변화가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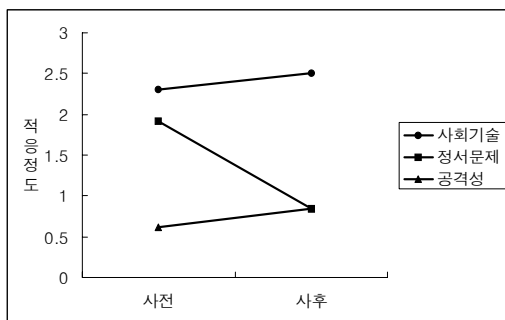
<그림 4> 사례3의 사전-사후 적응정도

사례3은 프로그램 초기부터 열심히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발표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1회 프로그램부터 자신이 선택한 캐릭터 그림을 다른 구성원이 똑같이 선택하자 양보했으며, 사용한 물품들을 쓸선하여 정리하였다. 사례3의 이러한 모습은 프로그램 회기를 거듭할수록 횟수가 증가하였으며, 다른 구성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서로 양보하고 사용한 물건을 정리하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자매인 사례2와 마찬가지로, 가정폭력 경험을 나누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방어적인 모습을 드러내, 자신은 엄마, 아빠가 싸우는 것을 한번도 본적이 없다고 말했다.

㉕ 사례4(여, 1학년, 복지관 이용)

사례4는 평상시 또래관계에서 아이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편이며, 욕심이 많고 자주 우는 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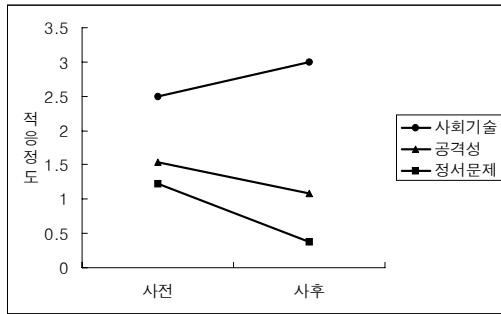
이었다. 본 프로그램에서도 초기에 지도자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를 강하게 보이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집중시키려는 행위를 보이는 등 의존적인 특성이 두드러지게 관찰되었다. 집단 내에서 주목받고 싶어하는 사례4의 욕구는 프로그램 초기에 발표의사를 손을 들어 적극적으로 표시하거나 지도자의 질문에 열심히 대답하는 등 활발히 참여하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그러나 지도자가 지속적으로 자신에게 주목하거나 자신의 행위에 호응해주지 않자, 후반부로 갈수록 책상에 가만히 엎드려 있거나 “심심하다”, “지루하다”와 같은 말을 자주 언급하는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점차 프로그램에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례4는 사전-사후조사상에서 정서문제 점수가 1.07 감소하고 사회기술이 0.2점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결국 사례4의 행동적인 변화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변화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시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실제로 프로그램 종결 1개월 이후에 실시된 사후모임에서는 본 프로그램 진행 당시보다 다른 구성원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주목받고자 하는 행동들이 현저하게 감소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림 5> 사례4의 사전-사후 적응정도

㉮ 사례5(남, 1학년, 복지관 이용)

사례5는 복지관 실험집단에 참여한 유일한 남자아동으로, 프로그램 참여를 통하여 정서문제, 공격성, 사회기술 모두에 있어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정서문제의 경우 프로그램 참여 이후 0.85점, 공격성 0.46점 감소하였으며, 사회기술은 0.5점 증가하여 세 평가도구 상에서 모두 변화가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6>과 같다.



<그림 6> 사례5의 사전-사후 적응정도

프로그램 초반에 사례5는 지도자를 비롯하여 다른 구성원들이 의견을 말할 때 끼어들어 가로막고, 자신의 생각을 큰소리로 말하며 다른 구성원에게 “이쁜 척 한다” 등과 같은 부정적인 피드백을 주었다. 그러나 진행자가 사례5에게 엄격하면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은 태도를 유지하며 개입하였고, 집단 구성원들과 점차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자 대인관계기술이 향상되고 참여도가 높아지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회기초반에 자신에 대해서 “안 좋아요”, “못 해요”와 같은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치었으나,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타인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도 칭찬할 점을 적극적으로 밝히는 등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1회기부터 심하게 트름하는 행동을 자주 보였는데 점차 집단 내에서 자신의 의견이 수용되고 긍정적인 지지를 받게 되자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실제 트름 횟수가 현저히 줄었다. 사례5의 경우 진행자와 집단 구성원들과의 관계형성, 그리고 프로그램을 통하여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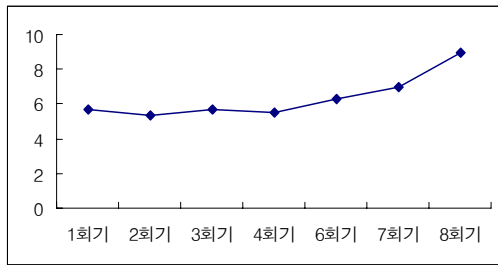
② 실험집단 II

㉞ 사례6(여, 1학년, 씩터 거주)

사례6은 병약한 체질로 평소 어머니로부터 과보호 받는 편이었으며, 어머니는 과잉행동을 사례6의 주요문제로 지적하였다. 집단 활동에서는 이해력과 상황과약능력이 떨어져 프로그램 내용을 수용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명랑하고 밝은 성격 때문에 집단 구성원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정서문제, 사회기술 등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초반부에는 위축되어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발표하거나, 진행자의 질문에 활발히 대답하지 못하였고,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아이들의 생각을 그대로 따르거나 모방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다. 그러나 후반부로 갈수록 ‘칭찬합시다!’에서 적극적으로 다른 구성원들을 칭찬하고, 발표할 때에는 손을 들어 자신의 생각을 밝히거나 다른 아이들의 말에 적절한 피드백을 주는 등 참여도가 높아지고 사회기술의 향상을 나타내었다.

사례6의 회기별 자기표현 및 정서적 표출의 정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의 <그림 7>과 같다.



<그림 7> 사례6의 회기별 관찰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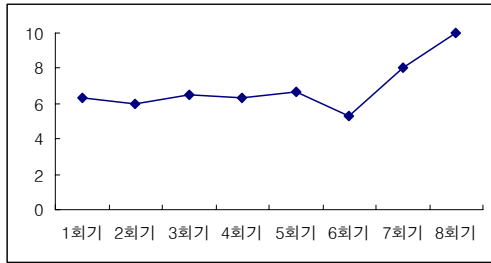
㉔ 사례7(여, 2학년, 쉼터 거주)

사례7은 평소 심각한 가정폭력 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왔으며, 그로 인한 상처가 쉼터 내의 다른 아동들에 비해서도 보다 심각할 것으로 예측되는 아동이었다. 사례7은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거나 사소한 일에 심하게 화를 내는 등 감정기복이 매우 심하고, 자신에게 관심이 집중되지 않으면 진행을 방해하는 행동이 잦았다. 첫 회기부터 자신의 가정폭력 경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털어놓았는데 대화를 독점하고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이야기 도중 감정이 고양되어 울음을 터뜨리는 일이 4회기까지 지속되었다. 3, 4회기에서는 사례7의 이야기에 다른 구성원들이 위로하거나 지지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자 진행자나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불평이 많아지고, 다른 아동들을 비난하거나 무안을 주는 행동이 나타났다.

중반부에 들어서면서 독점적으로 폭력경험을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중단되었으나 여전히 자기 고집대로만 행동하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자리를 이탈하거나 책상 밑으로 들어가서 드러눕는 등의 행동을 보였다. 그러나 7회기부터는 방학을 마치고 학교에 가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전반적으로 기분이 고양되어 불평이나 짜증이 줄어들었다.

사례7은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하고 언어적 행동적 공격성이 두드러졌으며,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면서 다른 구성원들로부터 지지받지 못하는 등 사회기술도 떨어져서 전반적인 부적응을 보인다고 하겠다. 프로그램 후반에 다소 긍정적 변화가 있었으나 그러한 변화가 본 프로그램 참여로 인한 것인지 개학으로 인한 생활환경의 변화로 나타난 일시적 변화인지는 불분명하다. 사례 7은 장기간에 걸친 심각한 가정폭력 노출로 인한 손상이 상대적으로 더욱 심한 것으로 보여서 집단 종료 후 개별상담이 권유되었다.

사례7의 자기표현 및 정서적 표출의 정도를 매 회기 관찰한 결과는 다음의 <그림 8>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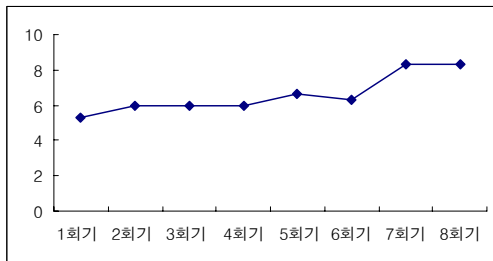
<그림 8> 사례7의 회기별 관찰평가

㉔ 사례8(여, 3학년, 쉽터 거주)

사례8은 프로그램 초기에는 위축된 모습이 자주 관찰되었다. 주눅 든 표정이었으며, 아이답지 않게 지나치게 남을 배려하다가 자신이 발표할 기회를 놓치거나 자기 간식을 진행하나 다른 아이들에게 양보하기도 했다. 다소 살이 썩 외모 때문인지 부정적인 자기이미지도 여러 차례 표현하였다.

그러나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점차 자신감을 회복해 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특히 그리기와 만들기에 상당한 재능을 보이면서, 중반부 이후에 진행된 ‘찰흙 만들기’나 ‘겉개그림 만들기’ 등의 활동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사례8은 계부가 어머니에게 행사하는 폭력에 노출되었을 뿐 아니라 계부로부터 직접적인 학대를 당해 왔는데, 쉽터 입소 후 학대에서 벗어나면서 심리적 안정을 찾아가던 중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긍정적 변화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사례8이 프로그램 진행과정에서 자신을 표현하고 정서적으로 표출한 정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9> 사례8의 회기별 관찰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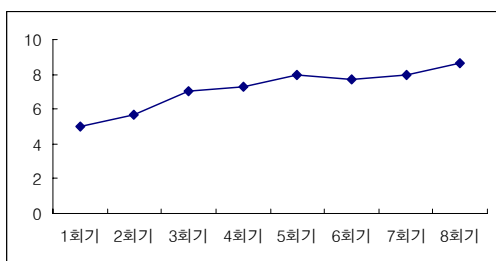
㉕ 사례9(여, 4학년, 쉽터 거주)

사례9는 프로그램 초기엔 내성적이고, 가정폭력에 대한 자기노출을 꺼리면서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다. 주로 다른 구성원들의 활동을 관찰하면서 자신을 개방하거나 적극성을 보이는 아동들에 대해 ‘잘났어’라는 말하고, 눈을 즐기는 등의 행동이 나타났다. 그러나 3회기에서 가정폭력 노출아동에 대한 비디오를 시청한 후 흐느껴 울면서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았다. 부모문제에 인하여 장녀로서 자신이 경험한 어려움, 지나친 책임감, 아버지에 대한 원망 등을 토로하였다. 이에 진행자들과 다른 구성원들

이 함께 지지적으로 반응하고, 부모문제에 대한 책임은 부모에게 있음을 강조했다. 이후 회기에서는 자기표현이 증가하고 최고 학년으로서 ‘큰언니’다운 지도력을 보이며 다른 구성원들을 이끌었다.

프로그램 진행 도중 갑작스레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으나 별다른 정서적 동요를 보이지 않았으며, 진행자에게 자신의 집단 활동에 대해 어머니에게 전화로 알려줄 것을 부탁하는 등 자신의 필요를 적절히 요구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사례9는 가정폭력으로 인해 집을 떠나 쉼터에서 생활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어머니의 입원으로 위기에 처하였으나 본 집단프로그램에서 정서적 환기를 경험하고 부모문제에 대한 부담과 죄책감이 완화되자 정서적으로 빠르게 안정된 것으로 보인다. 사례9의 자기표현과 정서적 표출에 대한 회기별 관찰평가의 결과는 다음의 <그림 10>과 같다.



<그림 10> 사례9의 회기별 관찰평가

(2) 솔로몬4집단설계 분석

솔로몬4집단설계에서 실험효과를 구하는 공식4)에 의하여 정서문제, 공격성, 사회기술, 가정폭력에

4) 솔로몬4집단설계는 상호작용효과와 기타 외생변수의 효과를 분리해 냄으로써 순수 실험효과만을 산출해낼 수 있는 이상적인 설계모형이다. 이와 같은 과정을 수식화하면 다음과 같다(채서일, 1996).

집단1: (R)	O ₀	X	O ₁
집단2: (R)	O ₂		O ₃
집단3: (R)		X	O ₄
집단4: (R)			O ₅

본 실험에서 각 집단에 무작위로 피실험자들을 배정하였다면, 이러한 무작위화가 외생변수들 중 표본의 편중문제를 없애 준다고 할 수 있다. 같은 논리로 상호작용시험효과를 제외한 다른 외생변수들 간의 영향이 4집단에 동일하게 작용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때 사전측정치의 최종측정치는 두 개의 사전측정치의 평균인 $1/2(O_0 + O_2)$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집단1에서 얻어진 사후측정치와 사전측정치의 차이에는 주시험효과를 포함한 외생변수의 효과와 상호작용시험효과가 복합되어 있으며, 집단2의 경우에는 실험변수가 가해지지 않으므로 주시험효과를 포함한 외생변수의 효과만이 나타나며, 집단3의 경우는 실험결과와 외생변수의 효과, 그리고 집단4의 경우도 외생변수의 효과만이 작용하고 있다. 이를 간단히 수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O_1 - O_0 = \text{실험변수효과} + \text{상호작용시험효과} + \text{기타 외생변수효과} \text{ ----- (A)}$$

$$O_4 - 1/2(O_0 + O_2) = \text{실험변수효과} + \text{기타 외생변수효과} \text{ ----- (B)}$$

대한 인식, 그리고 가정폭력에 대한 대처에 있어서 프로그램의 실험효과를 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정서문제

정서문제의 경우 점수가 낮을수록 문제가 완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순수실험효과가 음수가 나올 때 프로그램 실시를 통해 정서문제가 완화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말한다. 본 프로그램의 정서문제에 대한 순수실험효과(E)는 -0.4574로 프로그램 실시 이전에 비해 실시 이후 정서문제가 완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begin{aligned} \text{실험효과}(E) &= [(-0.6218) - (-0.0746)] + [(-0.0746) - (-0.1644)] \\ &= -0.5472 + 0.0898 \\ &= -0.4574 \end{aligned}$$

② 공격성

공격성의 경우 점수가 낮을수록 공격성 정도가 낮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순수실험효과가 음수가 나올 때 프로그램실시를 통해 공격성이 낮아졌다는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말한다. 본 프로그램의 공격성에 대한 순수실험효과(E)는 -0.3826으로 프로그램 실시 이전에 비해 실시 이후 공격성이 감소되었음을 보여준다.

$$\begin{aligned} \text{실험효과}(E) &= [(-0.1539) - 0.3185] + (0.3185 - 0.2287) \\ &= -0.4724 + 0.0898 \\ &= -0.3826 \end{aligned}$$

③ 사회기술

사회기술은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기술이 향상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순수실험효과가 양수가 나올 때 프로그램 실시를 통해 사회기술이 증진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본 프로그램의 사회기술에 있어서 순수실험효과(E)는 0.7633으로 프로그램 실시 이전에 비해 실시 이후 사회기술이 향상되었음을 보여준다.

$$O_5 - 1/2(O_0 + O_2) = \text{기타 외생변수효과} \quad \text{----- (C)}$$

이와 같은 계산식에서 (A)식과 (B)식을 이용하여 상호작용실험효과를 산정해 낼 수 있으며, (B)식과 (C)식을 이용하여 실험효과만을 분리해 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 근거하여 실험효과를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text{실험효과}(E) = [(O_1 - O_0) - (O_4 - 1/2(O_0 + O_2))] + [(O_4 - 1/2(O_0 + O_2)) - (O_5 - 1/2(O_0 + O_2))]$$

$$\begin{aligned} \text{실험효과}(E) &= (0.32 - 0.1338) + [0.1338 - (-0.4433)] \\ &= 0.1826 + 0.5771 \\ &= 0.7633 \end{aligned}$$

④ 가정폭력 인식

가정폭력인식의 경우는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폭력에 대해 바르게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순수실험효과가 양수가 나올 때 프로그램 실시를 통해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가정폭력 인식에 있어서 순수실험효과(E)는 0.02로 프로그램 실시 이전에 비해 실시 이후 참여아동들의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이 다소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begin{aligned} \text{실험효과}(E) &= (0.12-0.45)+(0.45-0.1) \\ &= -0.33 + 0.35 \\ &= 0.02 \end{aligned}$$

⑤ 가정폭력 대처

가정폭력대처 역시 가정폭력인식과 마찬가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폭력에 대해 바르게 대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순수실험효과가 양수가 나올 때 프로그램 실시를 통해 가정폭력에 대한 대처가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가정폭력 대처에 있어서 프로그램을 통한 순수실험효과(E)는 0.1467로서 프로그램 실시 이전에 비해 실시 이후 참여아동들의 가정폭력에 대한 대처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begin{aligned} \text{실험효과}(E) &= (0.2-0.72)+(0.72-0.0533) \\ &= -0.52+0.6667 \\ &= 0.1467 \end{aligned}$$

6.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서울과 대전지역 초등학교, 사회복지관, 쉼터의 가정폭력 노출아동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가정폭력 노출아동은 일반 아동에 비해 정서문제와 공격성이 심하고, 사회성이 떨어지며,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및 대처가 부적절하였다. 즉 이들이 특정 영역에서가 아니라 적응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가정폭력 노출아동의 문제는 쉼터 아동 뿐 아니라 일반 가정에 거주하는 아동들에게서도 공통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와 기존의 가정폭력 노출아동을 위한 개입프로그램에 기초하여 쉼터와 일반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통합적 집단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실시하고 그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시된 프로그램은 정서문제와 공격성의 완화, 사회기술의 향상, 가정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 및 대처전략 습득 등을 목표로 하였다.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 검증은 참여 아동에 대한 개별사례분석과 솔로몬4집단설계를 병행하였다. 사례분석 결과, 정서적 불안정이 지속되어 개별상담이 의뢰된 경우도 한 사례 있었으나, 대부분의 사례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되어감에 따라 초기의 위축되고 소극적인 행동에서 점차 자기표현이 증가하고 자기 스스로나 다른 구성원들을 적극적으로 지지, 격려하는 등 긍정적인 행동이 나타났다. 솔로몬4집단 실험설계의 공식에 따라 본 프로그램의 순수실험효과를 산정한 결과, 정서문제의 경우 -0.4574 , 공격성 -0.3826 , 사회기술 0.7633 ,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0.02 , 가정폭력에 대한 대처 0.1467 로 나타났다. 즉 본 프로그램은 정서문제, 공격성, 사회기술, 가정폭력 인식 및 대처에 있어서 상당한 정도의 순수실험효과를 갖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가정폭력 노출아동에 대한 임상적 실천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폭력 노출아동에 대한 개입 노력이 지속되어야 하겠다. 본 연구의 결과, 가정폭력 노출아동은 일반 아동에 비해 심각한 정서적, 행동적, 사회적 문제를 보이고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나 대처도 부적절함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우리의 개입 노력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현재 우리 사회의 가정폭력에 대한 대처는 주로 피해여성에 대한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교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가정폭력 노출아동은 철저히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에 대한 서비스는 쉼터에서 간헐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전부라고 할 수 있는데, 양적으로 빈약할 뿐 아니라 전문성도 결여되어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가정폭력 노출아동이 경험하는 여러 가지 문제의 심각성이 재차 확인된 바, 이들에 대한 개입 노력이 강화되어 보다 다양한 전문 프로그램들이 꾸준히 개발되어야겠으며, 개발된 프로그램이 쉼터는 물론 일반 사회복지관이나 학교 등 여러 기관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급하는 노력도 필요하겠다.

둘째, 가정폭력 노출아동을 위한 개입에 있어서 우리 가족문화의 특성을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 역시 지속되어야 하겠다. 선행연구에서도 가정폭력 노출아동에 대한 개입에서 우리 문화의 가족주의적 특성상 아동이 가정폭력 문제를 외부에 노출하거나 폭력에 대한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음을 인식하면서 죄책감이나 저항감을 가질 수 있고, 가정폭력을 경찰에 신고하는 것과 관련하여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유의할 것 등 우리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할 것을 강조하였다(양혜원, 2002). 본 연구에서는 이외에도 우리의 가족주의적 문화에서는 부부간에 폭력이 발생할 경우 아동이 이에 더욱 깊이 개입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들 아동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이 보다 심각하므로 아동이 이를 충분히 표출할 수 있도록 격려하였다. 또한 가정폭력 노출아동들에게 부모 문제에 부적절하게 개입하지 말도록 지도하는 과정에서 아동이 호소하는 거부감과 죄책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본 프로그램의 진행 과정에서 가정폭력에 대한 아동의 책임감과 죄책감이 다루어지면서 빠른 변화를 보인 사례가 있었다. 가정폭력 노출아동에 대한 임상적 개입을 반복하면서 이 문제와 관련된 우리 문화의 특징을

보다 구체적으로 발견하고 또 이에 대한 적절한 개입을 시도하여 긍정적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가정폭력 노출아동에 대한 임상적 개입 노력은 이제 겨우 시작된 단계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도 꾸준히 계속되어야 하겠다. 가정폭력 노출아동에 대한 효과적 개입에 영향을 미치는 우리 문화의 구체적 특성을 밝히고, 그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개입의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실질적 개입 기술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 비해 치료적 접근과 활동구성에 있어서 교육적·인지적 측면을 크게 줄이고 대신 정서적 접근과 신체적 활동 등을 강화하였다. 그 결과 참여 아동의 프로그램에 대한 흥미가 높아지고 프로그램 진행이 원만해지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자들의 주관적 견해로서 객관적 평가를 통한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겠다. 또 연령이나 생활환경 등이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들과 상이한 아동들에게는 또 다른 접근이 보다 효과적일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후속연구를 통하여 성별, 연령, 생활환경, 그리고 노출된 가정폭력의 유형 및 정도 등 아동의 개인적·환경적 특성에 따른 서로 다른 개입 모델들이 개발되고 수행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모델들의 효과성에 대한 비교 연구도 필요하겠다.

참고문헌

- 김재엽. 1998. “한국가정폭력실태와 사회계층과의 관계연구”. 『한국사회복지학』 35: 133-155.
- 김경희. 1995. “폭력가정 청소년의 가족폭력경험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미간행).
- 김연옥·박인아. 2000. “가정폭력이 유형별 관련성과 아동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한국 가족복지학』 5: 103-127.
- 노치영·박성연. 1992. “가족폭력의 세대간 전이에 관한 연구: 부모의 폭력행동과 아동의 공격성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0(4): 219-230.
- 민병근·김현수. 1997. “부부관계, 부부역동성 및 가정폭력이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 『신경정신의학』 140: 878-895.
- 양혜원·전명희. 2001. “아내폭력 노출이 자녀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연세 사회복지연구』 6·7: 127-152.
- 양혜원. 2002. “아내구타 노출 아동의 통합적 집단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 『가족과 문화』 14: 105-136.
- 조미숙. 1999. “아내구타가정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 관련변인 탐색을 위한 사회 사업적 접근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미간행).
- 채서일. 1996. 『사회과학조사방법론』 서울: 학현사.
- 한국여성개발원. 1999. 『성의식과 여성에 대한 폭력연구』.
- Achenbach, T. M., and C. Edelbrock. 1991.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4-18 and 1991 Profile*. Burlington: University of Vermont.
- Alessi, J. J., and K. Hearn. 1984. “Group Treatment of Children in Shelters for Battered Women.” pp. 49-61. in *Battered Women and Their Families*, edited by A. R. Roberts. New York: Springer.

- Alessi, J. J., and K. Hearn. 1998. "Group Treatment of Children in Shelters for Battered Women." pp. 159-173. in *Battered Women and Their Families 2nd edition*, edited by A. R. Roberts. New York: Springer.
- Carlson, B. E. 1990. "Adolescent Observers of Marital Violence." *Journal of Family Violence* 5: 285-299.
- Carlson, B. E. 1984. "Children's Observations of Interparental Violence." pp. 147-167. in *Battered Women and Their Families*, edited by A. R. Roberts. New York: Springer.
- Fantuzzo, J. W., and C. U. Lindquist 1989. "The Effects of Observing Conjugal Violence on Children: A Review and Analysis of Research Methodology." *Journal of Family Violence* 4: 77-94.
- Fantuzzo, J. W., L. M. Depaola, L. Lambert, T. Martino, G. Anderson, and S. Sutton. 1991. "Effects of Interparental Violence on the Psychological Adjustment and Competencies of Young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9(2): 258-265.
- Gentry, C. E., and V. B. Eaddy. 1980. "Treatment of Children in Spouse Abusive Families." *Victimology* 2(4): 240-250.
- Gibson, J. W., and L. Gutierrez. 1991. "A Service Program for Safe-Home Children." *Families in Society: The Journal of Contemporary Human Services* 72: 554-562.
- Hughes, H. M. 1982. "Brief Intervention with Children in a Battered Women's Shelter: A Model Preventive Program." *Family Relations* 31: 495-502.
- Hughes, H. M. 1988.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Correlates of Family Violence in Child Witness and Victim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18: 77-90.
- Hughes, H. M., D. Parkinson, and M. Vargo. 1989. "Witnessing Spouse Abuse and Experiencing Physical Abuse." *Journal of Family Violence* 4: 197-209.
- Hughes, H. M., and D. A. Luke. 1998. "Heterogeneity in Adjustment Among Children of Battered Women." pp. 185-222. in *Children Exposed to Marital Violence*, edited by G. W. Holden, W. R. Geffner and E. N. Jouriles.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Jaffe, P. G., D. A. Wolfe, and S. K. Wilson. 1990. *Children of Battered Women*. Newbury Park, CA: Sage.
- Jaffe, P. G., S. K. Wilson, and D. A. Wolfe. 1986. "Promoting Changes in Attitudes and Understanding of Conflict Among Child Witnesses of Family Violence." *Canadian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 18: 356-380.
- Loosely, S., L. Bently, P. Lehmann, L. Marshall, S. Rabenstein, and M. Sudermann. 1997. *Group Treatment for Children Witness Woman Abuse: A Manual for Practitioners*. London, On: The Children's Aid Society of London and Middlesex.
- Marshall, L., N. Miller, S. Miller-Hewitt, M. Sudermann, and L. Watson. 1995. *Evaluation of Groups for Children Who Have Witnessed Violence*. London, ON: London Family Court Clinic and Centre for Research on Violence Against Women and Children.
- O'Keefe, M. 1994. "Racial/Ethnic Differences among Battered Women and Their Children."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9: 63-78.
- Peled, E., and D. Davis. 1995. *Group Work with Child Witnesses of Domestic Violence: A Practitioner's Manual*. Thousand Oaks, CA: Sage

- Peled, E., and J. L. Edleson. 1995. "Process and Outcome in Small Groups for Children of Battered Women." pp. 121-144. in *Ending The Cycle of Violence: Community Responses to Children of Battered Women*. edited by E. Peled, P. G. Jaffe and J. L. Edleson. Newbury Park, CA: Sage.
- Rosenberg, M. 1987. "Children of Battered Women: The Effects of Witnessing Violence on Their Social Problem-Solving Abilities." *Behavior Therapist* 4: 85-89.
- Sudermann, M., and P. G. Jaffe. 1999. "Child Witness of Domestic Violence." pp. 343-366. in *Assessment of Family Violence: A Clinical and Legal Sourcebook*. edited by R. T. Ammerman and M. Hersen. New York: John Wiley & Sons.
- Wagar, J. W., and M. R. Rodway. 1995. "An Evaluation of a Group Treatment Approach for Children Who Have Witnessed Wife Abuse." *Journal of Family Violence*. 10: 95-306.
- Wolfe, D. A., P. G. Jaffe, S. K. Wilson, and L. Zak. 1985. "Children of Battered Women: The Relation of Child Behavior to Family Violence and Maternal Stres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3: 657-665.
- Wyndham, A. 1998. "Children and Domestic Violence: The Need for Supervised Contact Services When Contact with the Violent Father Is Ordered/Desired." *Australian Social Work* 51(3): 41-48.

Analysis of the Problems of Children Exposed to Family Violence and Clinical Intervention Program for the Children

Kim, Jae-Yop

(Yonsei University)

Cho, Hak-Lae

(Korea Baptist Theological University)

Yang, Hae-Won

(Korea Digit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problems of children exposed to family violence. As a result, the children exposed to family violence exhibit various emotional, behavioral and social problems and distorted perceptions and inappropriate reactions toward family violence.

Based on these results and existing programs for children exposed family violence, an integrative group program has been devised. The program was applied to two groups of the children and an experimental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its effectiveness on emotional problems, aggressiveness, social skills and perceptions/reactions toward family violence. As a result, the experimental groups have shown an overall significant improvement in scores on emotional problems, aggressiveness, social skills and perceptions/reactions toward family violence.

The study offers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for clinical social work practice. First, great efforts to alleviating the problems of children exposed to family violence should be made continually. Second, special attention should be paid to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our own culture in clinical social work intervention and to do so, various practical intervention skills suitable to our culture should be developed. Finally, many different intervention models for children exposed family violence should be developed and researches comparing those models should be carried out.

[접수일 2003. 4. 17 게재확정일 2003. 9. 15]